

코로나 사태 이후를 대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 28:19,20)

COVID-19 사태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본부의 24 시간 릴레이 기도 모임에 참여하여 꾸준히 기도의 노동을 감당해 오고 계시는 동역자님들께, 또한 경제적으로 고난을 당하는 선교 동역자님들을 위해 구제기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가뭄 가운데서도 피어나는 야생 꽃 같이 역경 가운데 피어나는 사랑의 향기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널리 퍼지고 있음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 세기는 달력으로 치면 1900 년에 시작되었지만 내용적으로는 1918 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제 1 차 세계대전까지는 근대사상이 지배하였지만, 그 전쟁이 끝난 후에 국제질서는 새롭게 개편되었고 새로운 사상이 지배하는 세기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21 세기는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저는 2020 년 2 월에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유럽과 북미에 첫 COVID-19 환자가 발생한 2020 년 2 월, 인류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루 빨리 COVID-19 사태가 진정되고 과거의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고대합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이제 우리가 COVID-19 사태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백신이 개발되어도 COVID-19 은 RNA 형 바이러스라서 변형이 쉽게 되며, 더욱 강한 형태로 바뀌어 인류를 공격할 것이라고 합니다. 과거에 사람들에게 박쥐는 산속 깊은 곳인 동굴에서 사는 말로만 들어본 동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무분별한 자연 파괴가 동굴 안의 박쥐들을 밖으로 나오게 하였습니다. 그 박쥐들에게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직접 또는 여러 중간 숙주를 거치면서 인류에게 전염되었습니다. 현재 야생에 서식하는 동물의 몸에 있는 바이러스는 250 만종이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닥친 COVID-19 는 그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인류는 지금도 무분별하게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으며 생태계는 인류에게 역습을 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물질 우선주의 문명과 자국 우선주의를 추구하는 각 나라의 이기심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자연의 지속적인 파괴와 이에 따른 반격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한편, 사람들은 원활히 이동하지 못하고 한 곳에 머무는 가운데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동안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들을 생산하며, 불필요하며 분주하게 이동하였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세상은 과잉생산이라는 거품경제에 기초하여 물질문명을 지탱해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좀 더 인간다운 삶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과잉생산, 과잉활동으로 사람들을 탈진 상태로 몰아 놓았던 현대문명은 이제 큰 궤도 수정을 요구 받고 있습니다. 실상 COVID-19 사태 이전에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미 빠르게 온라인 환경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2012 년에 온라인으로만 수업을 진행하는 스타트업 대학교인 미네르바 스쿨이 생겼습니다. 이 학교는 교실이 없습니다. 캠퍼스도 없습니다. 등록금은 미국 일반 사립대의 1/4 인 연간 1 만 불 정도입니다. 그러나 교육 수준이 높아 하버드보다 들어가기 어렵다고 합니다. 2017 년 입학 경쟁률이 100:1 이었습니다.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몇몇의 캠퍼스 선교단체 리더들은 말했었습니다. "우리가 캠퍼스에 가서 학생들을 전도하고 캠퍼스에서 기도모임을 하는 것에 대해 앞으로의 방향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앞으로 캠퍼스가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캠퍼스 선교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왜 캠퍼스일까요? 국가와 사회의 기둥이 될 수많은 젊은이들이 매년 들어오고 나가는 교육의 터전ियो 영적 황금 어장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복음화할 때 그 사회와 나라와 전 세계가 복음화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캠퍼스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이번 봄 학기에 입학한 학생들은 캠퍼스 생활을 하루도 해 보지 않고 여름방학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변화를 거부합니다. 변하면 불안하고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는 가운데 자신의 지위와 생존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거부하는 세력이 COVID-19 로 인해 단번에 무너졌습니다. 다가 올 온라인 시대를 즉각적으로

앞당겼습니다. 온라인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사람들은 어려움을 호소하지만 한편으로는 억지로라도 적응해 나가면서 그에 따른 장점들도 발견합니다. 그 동안 자기를 잃어버리고 기계 속의 부속품처럼 정신 없이 살아왔던 것도 발견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가장 귀한 사랑의 공동체를 되찾기도 합니다. 공해가 줄고, 자연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필요하지 않은 여행을 하지 않고 정작 중요한 일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개인 시간을 충분히 가짐으로 천천히 가는 삶의 여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조만간 효과적인 백신이 개발된다 해도 온라인 세상에 적응이 되어 사람들은 과거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COVID-19 사태는 생태계, 도시환경, 국제질서, 경제활동 등 많은 면에서 큰 변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앙 가운데 있을 때에는 그 재앙이 영원히 계속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현재의 COVID-19 사태도 반드시 끝이 납니다. 역사상 영원히 지속된 전염병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이유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 1:8)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막 16:15) "예수께서 나아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 28:18-20). 예수님의 제자들은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도록 명령 받았습니다. 증인이 되도록 명령 받았습니다. 가서 세례를 베풀도록 명령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이 반드시 다시 만들어질 것입니다. Post Corona 시대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물론 그 Post Corona 시대는 코로나 사태 이전과 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 다른 전염병의 위협과 가능성이 상존할 것이며 그러기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공존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사람 간의 실제적인 만남이 대폭 축소되고, 온라인 미팅이 주도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이러한 Post Corona 시대를 생각하며 우리는 현재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거대한 도전 앞에서 우리는 어떤 방향을 잡아야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현재 어려움을 이기며 앞으로 올 Post Corona 시대를 준비할 수 있을까요?

첫째, 사랑의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며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이사야 55:9는 말합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우리는 땅에서 보지만 하나님은 하늘에서 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홀로 모든 일을 계획하십니다. 하나님은 하고자 하시는 뜻을 못 행하심이 없으십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범사에 믿고 감사해야 합니다. 공중의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물며 전 세계를 강타하는 COVID-19에 어찌 하나님의 뜻이 없겠습니까? 그러면, 그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현대 과학문명으로 교만해진 인간들을 겸손하게 하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수백 층의 바벨탑과 같은 고층 건물을 지으며 사람을 우주에 올려 보내지만, 인간은 실상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앞에서 철저히 무력한 존재임을 알게 하십니다. 인간은 바람이요 먼지와 같은 존재임을 알게 하십니다. 이와 같이 섭리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동안의 교만을 철저히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을 회복해야겠습니다. 겸손이 복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겸손이 거룩함입니다. 겸손이 믿음입니다. 겸손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이번 COVID-19 사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선한 징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믿고 감사하며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인간의 힘을 믿기보다 그리스도를 믿어야겠습니다. 예수님은 12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들과 3년간 동고동락하셨습니다. 그들을 교회의 기초요 복음역사의 주역들로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집중적인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까지 누가 크냐고 서로 다투었습니다. 예수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고 맹세한 그들이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거의 다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이런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다? 자기들의 힘으로 주님을 따르고자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들의 연약함을 이미 아셨고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마침내 성령이 강림하시고 그들 안에 내주하셨습니다. 내주하신 성령은 그들을 능력 있게 사용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는 사도행전이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마 28:20). 예수님은 그의 약속대로 그를 믿는 제자들과 항상 함께 계십니다. 어떻게 함께 계실까요?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복음 역사를 친히 이루어 가시는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항상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고후 13:5b).

COVID-19로 인해 잠시 숨을 고르면서, 우리는 그 동안 너무 우리가 나선 것이었던 것은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너무 나의 힘으로, 우리 힘으로 섬긴 것을 발견합니다. 기독교 2천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모임을 선교 열정이 뜨거운 모라비안 선교회와 같은 모임 중의 하나로 쓰셨습니다. 그러나 젊은이들의 열정으로 총만하여 우리 각자 안에 계신 그리스도, 지금도 교회 공동체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인간적인 열심으로만 섬긴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를 닮은 겸손하고 거룩한 사람들로 변화되기를 바라기보다 대량생산주의, 성공지상주의 시대의 영향으로 대형교회, 큰 역사만을 추구한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COVID-19 사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 역사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성령이심을 인정하게 하십니다. 우리 자신의 삶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회복하고자 하는 소원을 갖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열심은 성 어거스틴이 말한 바와 같이 자신의 무력함을 철저히 인정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에서 나온 순종으로서의 열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요 6:29).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새기며 지금도 죄 덩어리인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의 법을 실제적으로 배워야겠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혼과 영의 세계를 연결하는 감각기관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더 왕성하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미 십자가에 죽은 나의 옛 자아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경험하며 누리길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능력 있게 역사하기를 기도하며 또 그와 같이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셋째, 적극적으로 온라인 중심의 패러다임을 받아들이며 소수의 사람들을 제자양성 해야겠습니다. 온라인 중심의 패러다임은 거역할 수 없는 시대 흐름입니다. 불편하다고 멀리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자세로 수용하고 배우며 모바일과 영상 콘텐츠를 잘 배우고 활용해야겠습니다. 전도와 교육, 홍보와 제자양성도 온라인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스마트 폰이나 랩톱을 능숙하게 사용하며 소수의 사람을 제자양성 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온라인 시대로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더 많은 개인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선용하여 성경읽기와 암송, 묵상과 기도, 좋은 신앙서적 독서 등을 통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들을 사랑과 진리로 양육하는 가운데 그들이 좋은 제자가 되도록 섬겨야 합니다. 자녀들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요 가장 중요한 선교자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입니다. 이들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잇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 소 그룹 모임을 통한 제자 양성을 꾸준히 섬겨야겠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허락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점차로 소규모 그룹은 모이는 것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소셜 디스토텐싱은 모두와 거리를 두라는 것은 아닙니다. 모르는 사람과의 거리를 띄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가족들과 제자들과는 항상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세계 본부에서는 YouTube 등을 사용한 다방면의 온라인 콘텐츠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On Line forum 을 통해 선교 동역자님들이 영적인 무장을 하는 것을 돕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적인 만남뿐만 아니라 이러한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해 소 그룹 제자양성을 꾸준히 이루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넷째, 실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동역자들을 돌아보아야겠습니다. 여러 동역자님들이 COVID-19에 감염되어 고난을 당했습니다. 드물긴 하지만 소천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 가운데도 동역자님들의 기도와 실제적인 도움과 사랑으로 회복이 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의사, 간호사 동역자님들은 지금도 고난이 많습니다. 전염병의 일선 현장에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 동역자님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힘주시길 기도합니다. 또한 그간 북미와 유럽 등 세계 여러 동역자님들이 희생적으로 구제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어떤 가정 교회 지부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그간 동역자님들이 본부에 보내주신 총 구제금은 약 235,000 불입니다. 이 중에 4월 초순에 전세계 44 명의 동역자들에게 그 분들의 경제적 상황을 감안하여 총 111,000 불을 보내드렸고 5월 하순 2차 구제에 총 31 명의 동역자들에게 약 45,000 불을 보내드렸습니다. 여러 동역자님들이 도리어 구제받기를 거절하며 본인들보다 더 어려운 동역자들을 돕기를 바란다는 아름다운 요청들도 있었습니다. 또 지원을 받는 분들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UBF 공동체 식구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가 재물을 흠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시 112:9) 구제 물질 보다 그 물질에 담겨있는 사랑은 영구한 의가 됨을 믿습니다. COVID-19 사태가 지속되리라 보기에 계속하여 구제금을 아껴가면서 꼭 필요한 곳에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이 지면을 통해 구제금을 보내주신 분들 및 지부에게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또 계속하여 기도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경제 활동이 어려워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실직하고 있습니다. 특히 20 대 30 대의 실업이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당분간이기는 하지만 당사자들에게는 너무나 힘든 일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실제로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동역자들을 사랑하는 데서 나타납니다(요일 4:20b). 우리가 계속하여 헌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을 나 자신을 돌아보듯이 돌아보기를 기도합니다.

다섯째,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음을 알고 깨어 기도해야겠습니다. 로마서 13:11,12 절은 말씀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재앙의 시대가 깊어질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가난해지고 또 불안해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 각자가 이 시대를 비추는 사랑과 진리의 빛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재앙 가운데 낙담하지 않고 도리어 주님의 나라에 대한 불타는 비전과 소망을 갖고 이 시대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야겠습니다. 어느 학자는 지구환경 파괴 속도를 볼 때 우리가 이 지구상의 마지막 인류가 될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인 COVID-19 사태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진 사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다가옵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눅 21:28-31). 세계본부에서는 현재 24 시간 기도 릴레이 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머리를 들고 합심하여 또한 개인적으로 열심히 기도하는 종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재앙 가운데 선을 이루시고 큰 영광 받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재앙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끝이 납니다. 우리는 온라인 시대로 패러다임이 바뀌는 Post Corona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새로운 환경에서도 우리 각자가 먼저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 믿음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양성하는 일에 더욱 힘쓰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세계대표 윤모세 올림
(2020. 6. 20)